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4개소 현장견학

박홍률 목포시장과 간부공무원 20명 등 총 21명 현장견학 평가결과는 내부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목포시가 5월 2일과 3일 이틀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자원회수(소각)시설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소각) 시설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중인 타지역 소각 시설 현장견학에 나선 인원은 총 21명으로 박홍률 목포시장과 간부공무원 20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은 스토커 방식 2개소(부천, 천안)와 열분해 방식 2개소(고양, 화성) 등 4개의 자원회수(소각)시설을 견학하였다.

이날 견학단은 소각처리방식(스토커, 열분해) 별 시설의 운영기관에게 시설현황, 소각원리, 대기오염물질 제거 방법, 잔재물 처리방법,

폐열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다.

또한, 간부공무원은 현장견학을 토대로 소각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어실 등 시설운영 현장을 직접 관망하고 시설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평가했다.

이번 간부공무원의 현장견학 평가결과는 외부로는 공개하지 않고 내부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은 그동안 열린 두 차례의 공청회, 환경정책자문회의, 시의원과 시민, 언론인 등과 지난 2월 다녀온 현장평가단, 이번 간부공무원의 평가 결과까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계획이다"면서



"자원회수(소각)시설의 안전성, 시민 건강권 등 목포시와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최적의 방향으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벼 육묘상자 남거나 부족한 농가 연결해 드려요 영암군, 육묘상자 알선창구 운영

영암군이 이달 8일부터 다음 달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거나 부족한 모를 서로 연결해주는 '벼 낚는 육묘상자 알선창구'를 운영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이번 알선창구는, 농번기 농가의 바쁜 일손을 덜고, 육묘비 절감을 지원하는 조치.

사용하고 남은 모가 있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농업인상담소에 연락하면, 육묘에 실패하거나 부족한 농가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알선창구는 운영된다.

매년 모내기 시기에 영암군이 운영하고 있는 알선창구는 지금까지 농민들의 큰 효용을 얻어왔다.

지난해 영암군은 구입을 희망하는 52개 농가에 7,256상자를 연결했다. 육묘부족으로 애태우는 농가는 어려움을 해소했고, 이 과정에서 총 육묘비용도 25% 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년 5월은 주야간 온도 차가 커서 육묘상 모잘록병 발생과 뜬 모 발생이 많다. 야간 보온과 주간 온도 관리로 사전 피해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판 적량 파종과 상자쌓기 기간 고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일을 넘기지 말고 적기에 모내기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안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환경 개선 업무 협약

신안군은 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사업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김제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에 성실히 상호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안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역발전방안 수립과 실행력 있는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이 추진한 양해각서에는 사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 자료 생산·제공에 서로 적극 협력하고, 세부 협의 등을 거쳐 '실무협의회' 구성과 필요시 별도의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섬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 정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LH와 추진하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군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신안군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함평나비대축제 성료...엑스포공원 21일까지 무료 개방



공원 내 조성된 초화류 및 포토존 등은 그대로 유지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지난 7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나비대축제 축제장인 함평엑스포공원이 오는 21일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함평군은 "나비대축제를 관람하지 못한 군민과 관람객들을 위해 황금박쥐관을 제외한 함평엑스포공원 주요 전시관을 오는 2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함평나비대축제 폐막 후 일부 시설물은 철거됐으나, 공원 내 조성된 초화류 및 포토존 등

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다육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친환경농업관 등 주요 전시관을 비롯해 축제 기간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나비·곤충표본전시관도 연장 운영된다.

형형색색의 빛나는 조명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함평엑스포공원 야간 경관도 매일 저녁 10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자장에 위치한 함평자동차극장에서는 매주(월요일 휴관) 신작 영화가 개봉된다.

군 관계자는 "나비대축제 종료 후에도 축제장 개방을 요구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아 무료 개방을 결정하게 됐다"며 "많은 관람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2023년 무안군민의 날 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4년 만의 실외 행사 5000여 명 참석하여 군민·향우 모두 즐거운 축제

군민 소통과 화합의 장인 '2023년 제54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가 4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렸으며 다양한 행사 및 볼거리를 마련해 5,000여 명의 군민과 향우가 하나가 되는 군민화합 큰 잔치가 됐다.

이번 행사에는 입장식에서 무안읍을 비롯하여 9개 읍면의 특색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며 기념식에서는 군정유공 14명, 효자효부 9

명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특별기념식이 마련되어 5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6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각 읍면에서 14명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개최하여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편 행사장 내에는 고향사랑기부,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 무안 치유의 숲 체험, 관광홍보, 농산물 판매, 한우 홍보 및 할인판매 등 각종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군민화합 축하공연 헬로콘서트 "좋은날" 공연에서 국내 유명 가수 김희재, 박서진, 서지오, 금잔디, 영기, 농

수로 등이 출연해 2시간 동안 군민들과 함께 흥겨운 자리를 만들었다.

김산 군수는 "4년 만에 옥외 행사로 개최한 군민의 날 행사에 많은 군민과 향우들이 함께하여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군민화합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